

10년 전 만든 '전투복 사이즈' 바뀐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5-21 17:22 최종수정 2013-05-21 17:30



국방부 군무지원단 생활관(자료)

방사청, 연내 전투복 치수 개정키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10년 전 만들어진 장병들의 전투복 치수가 바뀐다.

방위사업청은 21일 "체형에 맞는 전투복을 보급하기 위해 전투복 치수 규격을 최근의 장병 치수 기준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병들이 입는 전투복 치수는 지난 2002년 신세대 신체기준으로 규격화됐다. 하지만 신세대의 신체가 갈수록 커지면서 10년 전 기준에 맞지 않아 치수를 바꾸기로 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군은 당시 신체기준에 따라 전투복을 상의 40개, 하의 34개 종류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신체치수측정조사사업'의 한국인 체형정보에 따르면 20대 남자의 평균 키는 173.2cm이고 여자는 160.0cm이다.

전투복 치수 개정은 방사청이 작년부터 시작한 '국방규격 품질 개선사업'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군에서 운용 중인 장비와 수리부속, 물자류 등의 조달 때 현실에 맞지 않은 국방규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해 예상되는 불만사항을 사전에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올해는 약 8개월간 350여 개의 군수품을 대상으로 국방규격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입찰을 통해 (재)한국조달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중소기업을 위해 수리부속류 180여 품목의 규격을 신규로 제정하기로 했다.

방사청의 노수훈(육군대령) 장비규격팀장은 "올해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통해 군수품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살인 진드기' 두려움에 제주 긴장속 평온>
- ▶ 김현중, UV 콘서트 스페셜 게스트 출연
- ▶ 어린이집에 맡긴 남아 뇌사상태 빠져...경찰 수사
- ▶ '골프황제' 우즈 "롱퍼터 금지하라"
- ▶ <더워지는 한반도>⑥그 많던 명태·쥐치는 어디로 갔나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6271003>

인쇄하기 취소